



“Extra Spicy Curry”

유 승 오 집사

미국 생활 십 수년을 지내면서, Price Club이다 Costco다 다니면서 긴 줄에서 서서 기다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지난 5월 초 금요일 Costco에서 강 승민 서리 집사님과 제가 두 cart 가득히 감자, 당근, 양파, 고기를 싣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shampoo, vitamin, 과자, 종이 등등 집안에 이리 저리 쓰일 잡동사니가 있을 공간에 대신 그득히 담겨있는 야채를 보면서 무슨 색다른 감회냐구요? 그게 사실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이나 손님 외에 큰 공동체를 먹이기 위해 장 보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아내가 챙겨 주는 음식을 날름 받아 챙겨 먹기만 하다가, 어쩌다 큰 책임을 맡아 수 백명 분의 음식거리를 거두어 간다 하니, 처음에는 도대체 몇 포대를 사야 할지, 몇 명이 얼마나 오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다행히도 강 집사님께서 경험이 많아서, 우왕좌왕하는 신세는 면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여러 집사님들의 참여로, 너끈이 재료 준비를 마치고 나서 container에 가득이 담긴 이 소박한 재료들이 300 여명의 식구를 맛있게 먹이는데 충분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뿌듯한 생각도 들고, 또,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한 분이 일평생 대접하시는 “밥상” 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일 당일, 이른 아침에 모여 고기, 야채 볶고 식기 챙기고 하다보니,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빠진 것 같다 싶더니, 정작 아무도 카레를 사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식품점에 급히 가서 사온 카레로 재난(?)을 면하기는 했지만, 맛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 날 카레 맛에 마지막 순간의 그 소동과 놀람, 안도의 한숨이 배어있어 extra spicy 했음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3페이지에 계속

6월호 차례

- “Extra Spicy Curry”
- 권두언
- 당회소식
- 웨마의 밤
- ECC 건축 소식
- 해외선교위원회
- 기금 모금 위원회
- 집사회
- 마리아 여성교회
- 에스터 여성교회
- 남선교회
- 상록기도회
- 그루터기 청년2부
- 쟁치기 청년1부
- Ransome Youth Group
- Sunflower 유년 초등 주일학교 소식
- confirmation 신앙간증
- 교우동맹
- 광고
- 새교우 환영반 소식
- KCB 갤러리



무엇을 팝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Brookline Mental Health Center 50주년 Banquet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삼백 명이 모여서 센터를 위해서 힘을 합하여 기금 모금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을 하였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뒤에 쓰려고 합니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것은 상점이 아니라 Community 를 위해서 사용하는 Community Hall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상점처럼 큰 유리창이 보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집사람과 참석을 하였는데 한 참가자가 저희들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분이 저희들에게 와서 말을 걸어 주기에 저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거니와 동양인은 저희들 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 전 홀로 되신 분이신데 남편이 한국에도 방문하셨다면서 한국인인 저희를 더욱 정답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보스톤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가정이라고 하니 금방 우리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 언급

그런데 후에 깨닫게 되기를 그분의 말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상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파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상점들은 이것 저것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라는 상점은 예수의 사랑을 파는 곳이 아닐까요? 그것도 거저 말입니다.

당회 소식

주요한 5월 당회 소식으로는 ECC 건축·용자·모금 위원회 보고와 인사건 보고가 있습니다.

활 지불함.
4. 5월 15일(토) ECC 모금 옥션과 음악의 밤 개최함.

- ECC 건축·용자, 모금위원회

1. Holden Street 쪽 입구(교회 정문), 왼쪽에 Bench를 설치함.
2.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이나, Certificate of Occupancy 가 아래층 New Kitchen 의 Duct Hood 설치와 연결되어 있어 기다리고 있음.
3. 200만불 용자액의 상환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월 \$14,328.61(년 6%)240개월(20년간) 분

- 인사건:

1. 유년·초등주일학교 담당이었던 김선희 전도사의 본인 요청 (건강상의 이유와 학업상의 이유)에 의해 5월 8일부터 3개월간 (2010년 7월 31일까지) 유급 휴직을 주기로 함.
2. 2010년 5월 9일부로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 임시 목회자로 이요한 목사를 임명함.

쉐마의 밤

지난 5월 29일(토) 쉐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장양술/김정림 집사님께서 손수 만드신 미역국으로 저녁을 함께 나누고, 친교를 나눈후 쉐마의 밤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동준 집사님, 정한진 전도사님, 김주영, 김세희 교우가 이끄는 쉐마 찬양단 인도로 찬양을 함께 드린

후, 중앙 교구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어, 이영길 목사님의 “생수의 강” 이란 제목의 설교 말씀이 있었고, 3 세대가 함께, 가족, 환자 교우들, ECC 건축,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찬양을 하여주신 중앙 교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6월 새교우 환영반 소식

교인위원회에서는 새로 교회에 출석하신 교우중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새교우 환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새교우 환영반은 3주에 걸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담임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나누며, 미국 장로교 소개와 더불어 성경공부 소개 등 교회와 신앙에 관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새교우 되신 분들은 이 새교우 환영반을 이수하셔야 6개월후 활동교인(active member-ship)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6월 새교우 환영반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립니다.

정연구/이기현 교우님: 작년 12월 말에 연수차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정연구 교우님은 비뇨기과 의사이시고, 현재 Children's Hospital, Boston에서 전립선암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교우님은 5대째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고, 늘 기도속에서 감사함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내과 의사이시고, Dana Farber 암 연구소에서 다발성 골수종의 기전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두 분 교우님은 중앙 3구역 소속이십니다.

박철규/이수연 교우님: 두 분은 1년 전 결혼하신 신혼부부 이십니다. 박철규 교우님은 부모님께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치의예과 신경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Brigham Women's Hospital에서 통

증 기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수연 교우님은 원래는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결혼과 함께 남편이신 박철규 교우님의 인도로 기독교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두 분은 2년 정도 보스턴에 머무르실 예정이고, 부부청년부 소속이십니다.

최영민 교우님: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친구와 함께 성당에 다니신 적이 있다는 교우님은, 청년 시절엔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커다란 은혜를 받으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니가 완쾌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늘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셨고, 1년간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면서 밴쿠버 한인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군대에서는, 훈련 횡수가 비교적 적은 사단장 당번병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보스턴에 위치한 한샘에 근무중 이시고, 청년 2부 소속이십니다.

김준성 교우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에서 생활해 오고 계신 교우님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군대 생활을 통해 주님을 처음 알게 되셨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군 시절부터 몸담아온 신앙 생활 덕분에, 군 생활에서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십 여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해 오시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해 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한샘에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청년 2부 소속이십니다.

광고

제직 수련회 : 7월 10일(토)

초청 강사 : 손대권 목사님

(Pittsburg Theological Seminary)

제직들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제직 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수양회: 8월 20~22(금~주일)

초청 강사: 노대준 목사님(뉴헤이븐 한인교회)

주 제: "변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고후 5:17)

전교인 여름 수양회에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월말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최현구 집사 781-777-2019)

교우동정

소천: 장준현 교우의 부친이 한국에서 4월 3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결혼: 장영준/박지혜 교우- 5월 1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sther Kim

I have been going to church my whole life. I was baptized when I was only a few months old a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in Brookline, and so were my siblings and cousins.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My grandparents from both side, my aunts, uncles and cousins are all Christian. I never missed a Sunday service unless I was sick. Even when on vacation, my family would take time on Sunday to read the Bible in our hotel room. For me, church was fun because I got to see my friends sing and praise, and do fun activities in bible study class. It wasn't until youth group when I first truly met God. The youth group retreats were more meaningful and eye opening than anything I had ever experienced at church.

However, the feelings and emotions I got at the retreats faded away when I adjusted back into my normal routines and going to church was still more for social development rather than spiritual growth. But then I stopped going for a while because of deteriorating friendships (at church). I felt guilty that friends were the reason why I went in the first place and also the reason why I stopped going. I fell into a selfish hole and routine; I would make up excuses or "sleep-in" when my family would be getting ready for church. There were times where my parents and I would yell at each other. They didn't understand why I didn't want to go, and soon after, I didn't understand myself. I realized that going to church wasn't to make or be with friends, it was to learn more about God in order to grow spiritually and to live a better life. I started going back to church every Sunday, but I went to the adult services in order to avoid certain people from the youth group. Later on, I rejoined the youth group after putting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behind me.

Last summer I went on the Nicaragua Mission Trip. My expectations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had experienced. I was expecting the trip to be a lot like the youth group retreats I had gone to in the past. Even though it didn't turn out that way,

my eyes were opened to new realizations. Instead of really focusing on myself and spiritually growing from within, I focused on trying to teach the native people about what I know what God has done for me. It was inspiring to see how engaged and eager people of all ages were willing to learn what we had prepared to teach them. People walked miles and miles just to hear us teach and sing praises. The people that came ranged from grandparents to little children. It really hit me that I should be thankful for everything I have in my life such as all of the opportunities that are handed to me on a daily basis. Even though many of the people that I met in Nicaragua did not have simple, essential things, they were happy because they had Jesus in their lives. During one arts and crafts activities, we were running out of time and asked if the kids could bring the coloring sheets home with them to color. All of them answered and said they didn't have crayons or markers at home. This made me feel horrible because we live in a culture where we take everything for granted. It also stuck in my mind for a while.

I started questioning myself and asked: Had I been taking God for granted? I found a passage in the Bible that talks about taking God for granted. When such a person hears the words of this oath, he invokes a blessing on himself and therefore thinks, "I will be safe, even though I persist in going my own way." This will bring disaster on the watered land as well as the dry. The LORD will never be willing to forgive him; his wrath and zeal will burn against that man. All the curses written in this book will fall upon him, and the LORD will blot out his name from under heaven. The LORD will single him out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for disaster, according to all the curses of the covenant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This passage talks about how Moses knew how people took God for granted by claiming allegiance to him, yet did as they pleased. He provided warning that people who did this would live a horrible life.

I should be honored to know God and should feel blessed to have had him in my life since childhood. Being confirmed is only the next step in showing and sharing to everyone, including God, how my faith has strengthened and grown.

ECC 건축 소식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이제 ECC 건물 안의 공사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말쯤으로 예상되었던 ECC 건물 완공이 몇가지 남겨진 마무리 공사와 Permit 받는 일로, 6월에 완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Permit 관계로는 아랫층 부엌 공사의 마무리 작업이 끝난후 ECC 건물과 함께 Fire Alarm Inspection permit을 주기로 하여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ECC 건물은 이제 건물 내부가 거의 마무리되어,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 진행된 주요 공사로는, 어린이 채플 안에 좌석들과 바닥, Oak flooring이 다 끝났고, Sanding/finishing 작업도 지난주에 다 끝나서, 이제 아주 훌륭하고 멋진 예배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석에서 강단쪽까지 연결되는 Wood screens이 다 설치되었고, 바닥들도 coating이 되어 윤기나는 멋진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도 나무로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엘리베이터도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CC 건물에서 현관쪽으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도 Cork flooring작업이 끝났고, 완공 마지막 단계에서 coating을 입힐 예정입니다. 또한, 구 건물의 복도에 위치한 family Restroom의 공사가 완전히 다 끝

나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Family restroom은 handicap access가 가능한 화장실이며, 아기들의 diaper change board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ECC 건물과 구 건물의 Room들의 Number가 새겨진 room Sign들이 다 붙여졌습니다. Community Center는 Ceiling panel installation이 계속되고 있고, 화장실들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으며, 놀이터 바닥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공사로는 AV(Audio/Visual) Room 완성과 HVAC 작업들이 있습니다. 작업들을 위해 늘 열심히 수고하시는 강석 회사 및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완공때까지 계속적인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페이지에서 계속

올 해는 남선교회 회장님의 제안으로, 각 구역별로 사진을 모아 slideshow도 만들었습니다. 사진부(김상기, 김은석, 정일진 집사님)가 여기 저기 찍었던 사진들과, 구역장들이 보내 주신 사진들로, 구역들의 화기에애한 모습들을 잡아 보고자 이 사진 저 사진 며칠 뒤적여 보니, 평소에 무심히 지나쳐 다니던 여러 교우들이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친구하자고 하면 당혹해 하지 마시고, 이 경험의 여파로 생각해 주십시오.)

요즈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런 저런 고통에서 자유로운 가정은 아마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인간사에서 유일하게도 아무 톨을 달 일 없이 무조건 celebrate할 수 있

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속에 잡힌 활짝 웃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돌아 서면 다툼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많은 시절이지만, 오늘은 인간 사이에 보기 드문 그 완전함,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celebrate 하는 날이기에, 다 접어 두고 활짝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웃어 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강박함이 다소 사그러 들겠지요. 어린 시절 비가 주룩 주룩 오는 여름 날, 음식을 빗고 계신 어머니의 무릎팍에 머리를 대고 마냥 누워 있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음 순간 매를 맞았을 게 십중 팔구 이긴 해도, 그 평안함의 기억은 지금도 비교할게 없군요.

해외선교위원회

2010년 니카라과 단기선교

안성완 집사

해외선교위원회는 안태준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강길원 장로님과 최연일 장로님께서 든든한 후원자(?)로 계십니다. 이번 2010년 니카라과 선교는 다섯번의 선교 훈련을 거치고, 7월말 중 의료품을 packing 하여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니카라과에 선교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니카라과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글을 쓰면서, 4년전 니카라과 선교의 감동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지금도 특별히 자야 발전된 것은 없지만 4년전 선교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제가 니카라과 선교에 동참하기로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생각은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스페니쉬는 전혀 못하고, 의료나 치과 선교를 하시는 분들처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뚝뚝한 제가 교육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들이 간다고 하니 괜히 걸멋만 들어 덩달아 선교를 가겠다고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눈녹듯이 사라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 선교 준비 미팅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교인 여러분들, 니카라과 선교 준비에 쓰라며 \$100 지폐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던 권사님, 선교단원과 선교지의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성도님들, 니카라과에서 쓸 약품을 날짜별, 종류별로 포장하던 우리 교회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을 보면서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주와 능력도 없고 니카라과에 가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니카라과에서 할 일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니카라과인들께 전달하고 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 니카라과 선교에서 여러분의 정성을 전달할 Member 명단입니다.

강길원, 김보라, 김애리, 김주영, 김향인, 노준성, 문강희, 방수영, 신소정, 안광진, 안성완, 안태준, 여주혜, 윤영중, 이선영, 이재혁, 장승혁, 지민형, 채진

병, 최연일, 황경수, Alvaro Alfonso Pena, Sonja Esmeralda Luna, Mercedes DeLuna, Kimairys Colon.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confirmation 신앙간증



Hyoin Kim

저는 1991년 1월 18일에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쪽 자

라다가 2005년 6월 여름, 제가 14살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6살 때 처음 엄마의 제안으로 발레학원에 놀다시 피하며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동안 발레를 해왔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발레 비디오로 오디션을 보아 Walnut Hill 이라는 예술고등학교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사한 결과에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저와 저희 가족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낯선 외국땅으로 새 삶을 살러 오게 되었지요.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게는 더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양쪽 바깥 발목에 여분의 뼈가 하나씩 더 있어서 tendonitis를 갖는 부상을 입게 되었지요. 그렇게도 좋아하는 발레를 하러 먼 땅 미국까지 왔는데 부상때문에 발목을 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없애기 위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보고, 얼음 찜질, 핫팩,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지요. 발레수업 도중 너무 아파서 항상 춤추는 것을 멈추고 앉아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것만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는 제 부상때문에 Nutcracker 등 공연 캐스팅 때 좋지않은 역할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이런 아픔과 불공평한 결과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제 자신에게 화도 내고 원망도 하면서 눈물로 몇 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희 외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교회 일와 기도로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지요.. 발목수술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저희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이 부상은 사람의 손길로, 의학 기술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다 믿고 맡겨야지만 나올 수 있

단다”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저희 할머니께서는 몇 차례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미련하게 등을 돌렸지요. 매 주일마다 교회는 나갔지만 모든 예배와 설교를 영어로 하여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제 자신과 이런 상황에 화와 짜증과 좌절로 제 마음은 딱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서 아무런 생각없이 오랫동안 집에서 찬송을 틀고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 저깊은 곳이 뜨거워 지면서 이유도 없이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제 무릎을 꿇고 앉아 찬송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소리내며 울고 또 울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오셔서 제 가슴 속을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저의 부상을 한 순간에 깨끗이 없애 주실 한 분, 하나님은 제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셨는데 저는 그동안 주님을 심지어는 일부러 무시하고 부정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죄인같은 마음에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난 후에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어루만짐을 느끼고 난 후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거짓말처럼 제 두 발목은 차츰차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도중 앉아있는 시간보다 춤추는 시간도 더 길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로 부터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은 일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마음을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주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났을때 부터 주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예요. 주를 떠나 다른 길로 방향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주의 품에서 저를 놓지 않으심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언젠간 끝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Christian 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Sunflower 유년 초등 주일학교



22일(화) 부터 25일(금) 까지 매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열립니다.

올해의 theme은 “I Choose Jesus -Being Root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입니다. 보스톤 근교의 한인교회로는 거의 유일하게 큰 규모로 열리는 여름성경학교는 알찬 내용과 재미있는 여러 학예 활동으로, 이제는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유명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방학과 맞추어 열리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학부모회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저녁식사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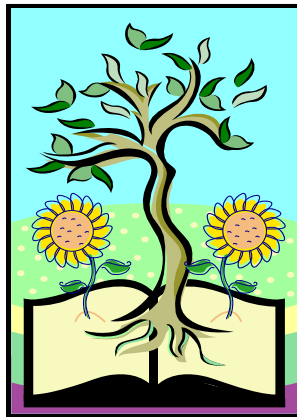
1. 어머니날 행사때 유년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이 참여하여 멋진 울동과 함께 은혜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등록을 이번 주일부터 받습니다. 어린이들 편에 등록서류를 보내드립니다. 꼭 등록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게 합시다.

2.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가 6월

KOREAN CHURCH OF BOSTON SUNFLOWER CHILDREN'S GROUP VACATION BIBLE SCHOOL 2010

BEING ROOTED IN
JESUS



THE GOSPEL OF
CHRIST

SAVE THE DATE!!

THIS YEAR'S VBS - "Being Root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
WILL BE HELD ON

TUESDAY, JUNE 22 to FRIDAY, JUNE 25, 2010 (5:00 PM TO 8:00 PM)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n!

기금모금위원회

옥션과 음악의 밤

안 태준 장로

이 물건 어디다 놓을까요? 이 물건은요? 어설피고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옥션 물품들이 가지런히 정돈되면서 어느덧 친교실은 멋진 전시장이 되어갔습니다.

딱 차가는 전시장을 바라보며 이제 손님만 오면 되겠다는 기쁨과 기대에 마음은 벌써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음악 순서를 맡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모여 리허설 준비에 바빴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미술 작품들을 정돈 하자니 마음은 어느덧 유명 갤러리에 와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간의 염려와 우려도 다 씻은듯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드디어 옥션시간이 다가옴으로 한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전시장을 둘러보며 사뭇 흐뭇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살 만한 물품이라도 있나 하는 표정들이 진지해들 보였습니다.

마음이 큰 여선교회의 맛있고도 푸짐한 음식은 오신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신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 다음날 청년부들 까지도 먹고도 남았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실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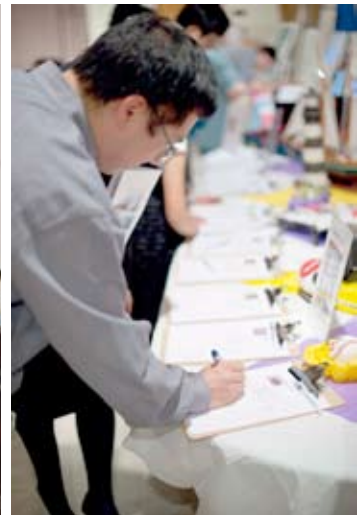
옥션 중간 중간에 펼쳐진 주일 학교 학생들의 연주는 오신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린 아

이들의 학예발표회 짬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게 웬걸, 실로 다이내믹한 연주앞에 넋을 잃고 쳐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과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마감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짐 짊어놓은 물건들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 짬 해놓은 물건을 누가 낚아채 갔다고 우는 아이까지 있고, 누가 가로채지 못하게 물건 앞을 가리고 떠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쟁을 하듯이 이 쪽이 값을 써내면 저 쪽이 올리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파장 오분전. 처음 시도한 옥션과 음악이 어우러진 밤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염려한 그 이상의 매상도 올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다. 큰 인연이 없이도 우리 건축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만으로 소장하고 있던 물품들을 선뜻 내어 주신 분들, 특별 작품을 만들어 주신 분들, 아름답게 전시장을 꾸며 주신 분들, 맛있는 음식으로 행사에 오신 분들을 대접해 주신 분들, 순서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줌으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 준 우리의 미래의 어린 음악가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으로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사회정의 위원회

특별기고 :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키자!

주수영 권사/ 평동계일감리교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0-3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환경 속에서 모든 생물은 삶에 필요한 온갖 물질을 얻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자연환경은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과 식물, 미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면에서 끊임없는 물질순환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며 이를 자연생태계라고 부른다.

전세계에는 약 3,000만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확인된 생명체는 불과 175만종이며 우리나라만도 10만종의 생명체가 추정되는데 이 중 2만8천종만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의 3대 허파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수림지역,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과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 인근 열대림 지역은 지구면적에 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생물 175만종의 절반인 50%가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미국의 뉴욕타임지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사실을 기재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이미 1995년만해도 1만 5천 개의 골프장이 있었는데 강대국의 아이러니라 할까?

또한 골프장을 수림지역에 건설하면 단위면적당 산소생산량이 1/7로 줄어든다는 학자들의 말을 귀담

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이 있는 습지나 계곡은 생물 종의 보호 때문에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지구의 생물종이 매년 약 5만종 이상이 멸종하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3배 정도의 목초지나 경작지가 매년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인간인 것이다.

1960년대 20억대 인구가 2000년 63억, 그리고 2020년엔 80억이 된다고 한다. 이들이 필요한 의, 식,주를 마련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분당만한 도시 하나를 건설하려면 분당만한 강원도의 석회산 하나가 시멘트를 만드느라 없어지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자재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나오므로 지구온난화 가속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여

농산물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러시아와 같이 득을 보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폭우, 병충해 등 자연재해의 반대급부가 더 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우리들은 늘 큰 집, 큰 땅, 큰 차, 많은 재물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환경훼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환경공학부 정교수의 목소리가 가끔 나의 양심을 찌를 때가 있다. 정교수와 종종 같이 등산을 하는데 늘 낡은 등산복 하나만을 입고 다니기에 ‘정교수, 이번 월급 받으시면 등산



Ransom Youth Group

황동준/안은신 집사

4월과 5월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잘 진행되었습니다.

• 매주 주일 아침에는 Praise team: Practice, Training, and Prayer 가 오전10:15-11:45 에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예배전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연습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 4/13 에는 Hillsong Concert 가 있었고 praise team member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 Confirmation/Baptism Class가 2/28 - 4/18 있었습니다.

• 금년도에 Nicaragua Missions에 안광진, 방수영 학생이 참가합니다:

• 5/7 - 5/9 에는Grotonwood Retreat Center 에서 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New Hope Church 에서 섬기는 Daniel Nam 전도사님이 “Living a Life of Prayer” 제목으로 2박 3일동안 말씀을 주셨고, 많은 기도와 찬양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5/9 에는 Mother’ s Day Presentation Song 으로 “To You” 를 선 보였습니다.

• 5/16 에는 Graduation Sunday Service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anice Cha, David Han, Sam Hyun, Esther Kim, Hyo In Kim, Min Hye, Kim, Sehee Sim

• 5/22 - Confirmation Party 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성인으로 견신한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Seniors: Esther Kim, Hyo-In Kim, Sehee Sim

• Juniors: Kwang Jin Ahn, SooYoung Bang, Dawit Kim, Naeun Kang

• 5/23 에는Confirmation Service 가 있었습니다. 1부 예배때는 Juniors 들이, 2부 예배때는 Se-

niors들이 신앙간증을 했습니다.

• 5/30 에는 ARISE 3 on 3 Basketball Tournament 가 Gordon College 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학생팀이 3년 연속 우승을 하여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황동준 집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루터기 청년2부

이봉열 교우

이제 여름이라고 말해도 다들 동의하실 정도로 날씨가 후덥지근해 졌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5월의 끝 무렵에 Brookline 소재한 Larz Anderson Park에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에, 시원하게 익은 수박과 노릇노릇 잘 익은 고기로 바베큐 파티를 즐겼습니다. 방학이라 많은 청년들이 모임 순 없었지만 소수 정예로 10명 정도 오손도손 여름 동안의 계획과 봄 학기 동안 있었던 많은 재미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이야기로 풀

어 놓으면서 봄을 정리하고 즐거운 여름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성경 매일 통독대회로 매일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9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1년에 1번은 다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 매어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 2부가 되겠습니다.

청지기 청년1부

김주영 교우



우리 청년1부에서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동체와 함께 섬김”을 주제로 한 수련회를 New Hampshire에 위치한 White Mountain에서 가졌습니다.

청년1부 담당 목사님이신 이요한 목사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한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눈 덮인 White Mountain 을 hiking 하면서 건강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서로를 통해 나누게 된 복음과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도 또 세상 속에 나아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로 그 손이 뻗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23일 주일에는 청년1부 outdoor fellowship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날씨에 즐겁고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청년 1부 형제 자매들이 타주로 또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기간이라 많이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기회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을 하는데 늘 낡은 등산복 하나만을 입고 다니기에 ‘정교수, 이번 월급 받으면 등산복 하나 개조하지’ 하니까 ‘또 사면 그만큼 자연이 파괴되지! 더 입을께.’ 하면서 웃었다. 이와 같이 우리모두가 각자 조금만 욕망을 억제하고 절약한다면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지구환경보호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사용억제, 자원절약, 재활용 등 우리 자신이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더불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재물의 욕망을 조금씩만 줄여도 지구의 자연환경보전에 큰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0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생명체와 함께 우리들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살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야겠다.

(주수영 권사는 보스톤 한인교회 주재는 집사의 아버님으로 前 국립환경연구원장,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시고 현재 한국환경건설팅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회정의위원회 계속

1. Immigrant Summit :

노회 주최로 6월 19일 Tumaini Church(700 Main St. Springfield, MA)에서 Immigration Summit이 열립니다. Keynote Speaker로 Julia Thorne (PCUSA Expert)이 오며, Leaders of Immigrant churches들과 이민자 문제에 관심하는 분들의 패널이 있습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도 참가하시는데, 이민자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토요타와 범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쇠에연씨를 위한 서명 운동:

한인회와 교회협의회에서는 한인 언론들이 벌이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 회사와 항소중인 쇠에연씨를 위한 서명운동에 보스톤 교회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스톤 지역의 서명운동 대상은 오바마 미대통령과 마타 코클리(Martha Coakley, Attorney General) 검찰 총장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정의위원회가 6월6일 주일부터 서명운동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1, 2부 예배후 친교실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며, 이 곳에서 서명 용지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choifive.ne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8&Itemid=57



알마티에서 김택주 인사드립니다.

김택주 선교사

일년간의 보스톤 생활과 보스톤 한인 교회의 성가대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기쁨과 쉽고 배움의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외분을 만나고 또 성가대원들과의 교제는 제 생애에 한국 기독교인들과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라고요! 목회자로 부교역자로 교인으로 보냈던 과거의 교회생활이 저에게 그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질 않았는데, 저의 부족함에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 만들어 주셨음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런던에서의 5시간의 기다림, 11시간의 더해진 시간차를 합하면 29시간에 걸쳐 알마티에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웬지, 전과 같지 않게 보스톤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선교지에 와 있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고, 보스톤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와 있어, 제트 락이 심해 이틀을 꼬박 쉬 다음 오늘은, 외출을 하였습니다. 현장 체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일 년이나 차를 세워두어 보험, 세금, 인스펙션을 해야 운행 할 수 있어, 걷고, 버스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도시에서 좀 벗어난 천산 산맥 자락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아, 사용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찾고, 셀폰 배터리가 죽어 새로 사야 하고, 아내의 비자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아 비자 연장을 위한 외출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 킬로미터를 걸어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타고, 일을 보기 위해 중간 중간 걸어 다닌 거리가 6 킬로미터 도합 10여킬로를 걸었는데, 도시의 변한 모습을 감지하기 위한 목적과 운동삼아 그리해 보았지만, “혀를 어깨 넘어로 걸치고 다녀야 합니다” .(카작식 표현) 제 핸드폰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인데, 구형이어서 배터리를 찾는 데도 헤메야 했고, 시장의 모델은 한국과 미국과 이곳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폰에 슬라이드폰에 아바타 DVD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유럽의 유명 브랜드의 보석과 화장품, 의상점들이 외국의 패션가를 방불케 하고, 새로 들어선 오피스 빌딩과 시내의 현대식 아파트는 외국의 그것 못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외제 승용차들이 거리에 즐비했구요. 그러나

시내버스만큼은 새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럽, 한국에서 중고차를 들여와 때우고 고쳐서 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동대문, 청량리가 그대로 써있는 버스도 있구요. 버스마다 차장이 있어, 돈을 거슬러 주고 받으며 목적지를 소리쳐 외치는 모습이 한국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저의 빠진 머리털과 희어버린 머리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였는데, 마로 내 앞에 난 자리를 내 건너, 건너편 사람이 어이, 어이 하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는 사이 껌싸게 자리를 차지하고도 미안, 고맙다 한마디 없이 모른 척 하고 앉지를 않나, 통로를 지나가며 컴퓨터 가방 모서리로 내 가슴을 쳐, 억! 소리를 질러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지 현장에 있음을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머리를 스치는 생각,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시 공간의 제한과 인간의 한계 상황, 더욱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갓은 수모를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런 취급이야 감히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으리니, 이런 선교사의 자리와 삶이 오히려 영광스러워 감사와 기도가 현장감이 더해져 절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9페이지에 계속



상록기도회

음식 바자회 이야기

이숙재 권사

3월 어느 토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식사시간이 끝나가는 중에 윤경문 목사님께서 아랫층 부엌이 많이 고쳐져 가고 있다고 하여 함께 내려가보니 많이 변해져 있어서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한샘가구(집사님)에서 많이 기부도 해 주시고 좋은 가격으로 해주셨다는데, 자연스럽게 산뜻한 캐비닛 색깔, 더 확장된 부엌 공간, 새 개스 오븐 등 너무 좋았습니다. 싱크대는 쓸만해서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counter top 또한 산뜻한 색상으로 부엌일 열심히 하고싶은 충동이 일게끔 개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엌이 커져서 우리 상록회도 한 자리 사용하고 싶다고 모두들 한마디씩 즐거운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이 부엌 개조를 위해 교회 예산이 부족하여, 개조에 드는 대금을 후에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상록회 기금 중 얼마라도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논이 있었으나, 음식 바자회를 열어 좀 더 기금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상록회원들께서는 연세들이 있으셔서 걱정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음식바자회를 결정하고 메뉴를 정하였습니다. 비빔밥, 잡채, 생선 및 두부 전 이렇게 정하고 날짜는 4월 두번째 주일로 정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침 저는 그때 휴가여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차이나 타운에서 계란, 시금치, 피망 등을, 한국 마켓에서 나머지 재료들을 사왔는데, 마켓 사장님이 5%를 깎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부와 콩나물은 도매상 중국가게에서 사왔고, 찰스타운에 가서 음식 담을 용기, 당근, 양파, 수저를 사왔는데 장 성수 집사님께서 불편하신 품으로도 운전을 마다치 않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교회 부엌에 모여 “하하 호호” 웃으며 음식을 장만 하는데 당근을 씻어놓고 보니 양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근이 단단해서 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김한나 집사님이 한 울다리 발간 때문에 왔다가 그 많은 양의 당근을 쉽게 썰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현실 집사님이 계란지단을 참 많이 부쳤는데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다”고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던 모습. 이경자 집사님이 “이렇게 12시간 부엌에서 있어 보기는 처음”이라고 웃으면서 썰던 버섯. 그 바쁜 중에도 도와 주겠다고 버섯을 썰던 윤 목사님. 애기 미나리, 부추, 달래를 섞어서 양념간장, 고추장을 만드시던 주풍실 권사님. 흥경자 장로님의 얇천한 솜씨와 생선전과 두부전. 정능화 권사님의 잡채 솜씨와

맛있는 떡.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숙재야!” 부르시던 음성. 이 모두가 즐거운 추억들입니다. 밤 9시가 되어서 떠나는데 모두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뛰어다니시며 이것 저것 챙기시던 모습들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손수 준비해 주신 김계숙 권사님의 빨간 무생채. 조금씩 부족한 것들도 있었지만 너무도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상록회원들, 신영각 회장님, 김지수 전 회장님, 김현지 권사님, 이상구 권사님, 모두 열심히 판매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되어 화합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교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길 담임 목사님의 한 말씀 “한 3만쯤 팔 하시겠는데요!” 음식을 사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원걸 집사

4월 18일 드디어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며 남선교회 회원들의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서 거칠었지만 씩씩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찬양에 교인들이 기뻐하며 박수와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창립 56년만에 드린 첫번째 헌신예배이니 더욱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자신의 연습 스케줄을 바꿔가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찬양을 지도해주신 김동원교우, 반주자 및 모든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더우기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회원과 호흡을 같이 하여주신 자문위원 한승희 장로님과 그 날 예배 순서를 담당 (기도: 방경남 집사, 헌금기도: 엄재관 집사, 남선교회 소개: 한문수 집사, 성경봉독: 이창호 집사, 사회: 이원걸 집사) 하여 주신 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선교회는 5월 9일 어머니 주일 찬양제를 기점으로 우리는 한가족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활동으로 각 구역 및 부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만든 slide show를 보며 온 교인인 한가족임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역장님과 각부서장님 그리고 slide 작업을 맡아 해주신 유승오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교회(가족)의 어른 되시는 상록기도회원님들께 공경과 존경의 표현으로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받으시며 너무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자문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특별순서로 정장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찬양하였는데 남성합창단을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곁들여진 변화경 장로님의 칭찬과 격려의 심사평은 보스톤 한인교회의 남성합창단(?)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듯 하였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교우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안에서 하나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집사회

ECC 건축기금모금 골프대회를 마치고

김태만 집사

5월달에는 집사회의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ECC 건축기금모금 음식바자, 어머니 주일 오찬,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ECC 건축기금 음식바자는 행사 전날 발생한 보스톤 주변시들의 상수원 오염사고로,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거나 준비중에 행사를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늦게 행사 취소 결정을 알려야 했는데, 손목이 시리도록 나물을 준비했을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건축헌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연초에 집사회 행사를 계획하면서 골프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골프대회가 있는 5월달이 되었습니다. 집사회 행사가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부장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바자 때의 경험도 있고 해서 날씨 걱정을 했는데 골프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저희집에서 한시간 반의 거리에 있는 골프장은, 생각과 다르게 시티 소유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새벽잠을 좀 뺏았기긴 했어도 긴 여행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니 벌써 준비팀이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구경겸 행사에 참여 했지만 다음 번 골프대회에서는 -제게는 연중행

사가 되겠지만- 직접 참가해서 골프를 치며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골프후원을 받고 행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한 이성우 체육부장 집사님과 김준구 집사님, 행사를 안내하고 후원을 해주셔서 힘이 되어 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후원금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행사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한 많은 교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페이지에서 계속

점심 시간을 훨씬 넘겨, 한식당과 다른 식당들을 지나며 배가 고과 들어갈 마음이 일었으나, 아내 혼자 정원에서 자라난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발걸음을 재촉할 수 밖에 없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에, 펼쳐 보이는 눈 덮힌 천산을 바라보니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찬양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내 옆을 쟁게 달리는 차들로 부풀린 흙 먼지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꼭, 다음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 하리라, 다짐

하며 발걸음을 프레스토로 해 봅니다. 늦은 오후의 뜨거운 햇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도착했음에도, 그리 반기지도 않는 무덤덤한 아내와 더불어 “리뽀시까” (카작 전통 빵, 진흙 불 가마에 구워 쫄깃한 맛의 둥글 납작한 세계 제일의 빵)를 꿀에 찍어 흑차와 함께 먹는 그 맛과 행복! 그리고 기쁨! “아, 이 세상에 나, 부러울 것 없어라!! 나,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만으로 만족하여라!!”

카작스탄 공화국 알마티에서 김택주 선교사 드림

마리아 여선교회



1. 4-5월에는 마리아 여선교회의 굵직한 행사들을 가졌던 달이었습니다. 4월 16-17일에는 1박2일로 동북대회 한미여선교회의 연중 연합수련회가 있어 그곳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 교회의 여선교회원 6명이 퀴지영생교회의 2명의 여선교회원들과 함께 장거리를 운행하며 친교의 시간도 가지며 Camp Washington Retreat Center (CT)에서 가진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곳은 날씨와 장거리의 장소라는 이유로 많은 인원이 참석치 못하였지만, 모처럼 질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북대회 회장이신 김홍교 목사(보은교회,

NJ)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시작하여, 지난 2월의 폭설로 모임을 취소했던 “여선교회 대표 수련회”를 간략하게 가지며 여선교회의 구조와 하는일, 연대 관계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수련회의 특별강사로는 NY. 아름다운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성희 목사님이 “주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진실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간단한 임시총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 2년 마다 선출하는 새로운 회장단 선출시기를 개정하는 회칙개정안을 다루었으며, 이로 인해 4월달에 있을 정기총회 시기를 9월달로 옮김으로 인해 현존의 회장단 및 임원단은 5개월간의 연장임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5월 1일에 보스톤노회 여선교회의 Spring Gathering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약 20여명의 보스톤 노회 여선교회원들이 모였고, 특별히 미동북대회 여선교회장인 Sandy Grillo가 NJ에서부터 참석하여 격려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날의 모임을 위해 Ann Crain의 Congo 선교사역의 보고와 slide show가 있었습니다. 모임후 우리교회 여선교회와 타교회 여선교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다과를 나누고, 우리교회의 어린이 예배당과 문화관 Touring도 하였습니다.



5월 한달은 에스더 여선교회에게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1. 에스더 여선교회 선교부 주최로 어머니 주일 찬양제가 5월9일 2부예배후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년과는 달리 남선교회에서 많은 상품들을 기증해 주셔서 상록회 분들에게 선물을 기증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시상이 부활되면서 열띤 경쟁의 분위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상품으로 아차상, 인기상, 노력상, 음악상 등 다양한 상들이 각 기관/구역별로 주워졌으며, 중앙교구의 찬양팀이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변화경 장로님의 재치있고 날카로운 심사평 또한 그날의 하이라이트로 장식되었습니다.



찬양제가 진행중인 동안 유승오 집사님이 준비하신 슬라이드쇼로 각 구역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긴밀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동시에 감상할 기회가 주워졌습니다. 다시 보고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주소로 보시면 됩니다. <http://kcboston.zenfolio.com/p619618992>



3. 5월15일에는 ECC 건축기금마련 경매와 음악회가 기금모금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는데 저녁 부패를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준비, 봉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일찍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해주신 많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서 계속

4월 상록기도회 모임에서 그간의 경과 보고를 드릴 때 재료비 빼고 \$2,400을 현금했노라고 말씀 드렸더니, 한국 방문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셨던 문애도 권사님과 주풍실 권사님,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던 최선희 집사님도 얼마를 내면 \$3,000이 되겠냐고 묻더니 나머지 금액을 현금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3,000을 아랫층 부엌 개조를 위한 현금으로 하였습니다.

씨를 서늘하게 해주셔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분좋은 성금으로 아랫층 부엌 개조하는 비용을 보태주신 상록회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뒷 설거지를 도와 준 장보경, 이해원 집사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어머니주일 문화제



• 어머니주일 문화제



• silent auction/음악회



• ECC 기금 모금 골프대회



• 부부청년부 수련회



• 보스톤 한국학교



• 1부찬양대 baby shower



• ECC 건축과정